

전남 중부권

市예산 매년 1억 지원받는 나주 배꽃합창단

지휘자 선임 갈등에 존립 위기

“외지인 받아들일 수 없다” 단원들 집단 탈퇴 표명

나주시가 매년 억대의 예산을 지원·육성하고 있는 ‘나주시 배꽃 합창단’이 선임 지휘자 선임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존립 위기를 맞고 있다.

15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0년도 지역 문화예술포 발진 취지로 ‘나주시 배꽃 합창단’을 발족, 관련 조례에 따라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도 1억14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는 상태다.

(52)씨를 새로운 지휘자로 위촉했다. 그러나 해당 지휘자가 외지인이라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기존 28명의 단원들이 탈퇴 입장을 표명하는 등 운영계획에 따른 연습 등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5일과 8일 선임 지휘자로 선임된 K씨가 단원들과의 연습을 위해 사무실에 출근을 했으나 단원들이 전혀 참석하지 않아 되돌아가는 해프닝이 연출됐다.

나주시 배꽃 합창단의 운영계획에 1주일에 3회씩 단원들이 모여 연습하도록 돼 있어 15일 정기모임에도 또 다시 단원들이 불참할 경우 사태가 확산돼 합창단의 해체 위기까지 불려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단원 A(여)씨는 “지휘자를 일방적으로 해촉하고 전혀 나주와 연고가 없는 새로운 지휘자를 위촉, 단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며 “나주시가 근본적으로 이번 갈등을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주시는 배꽃 합창단 내부 갈등이 이 같이 심각한 상태인데도 뚜렷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단원들 대부분이 특정 교회 성가대 소속이다 보니 지휘자 교체 문제로 잡음이 있는 것 같다”며 “15일자 정기모임 참석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choi@



강진 개펄 참꼬막잡이 시작

15일 강진군 도암면 강진만(灣) 개펄에서 참꼬막잡이가 한창이다. 꼬막은 부채꼴 모양의 방사륜 개수에 따라 참꼬막, 새꼬막, 피꼬막 등 세 종류로 구분한다. <강진군 제공>

장성 태풍 피해 복구비 143억 확보

중앙부처·전남도 지원... 내달부터 본격 복구

장성군이 태풍 ‘미이파’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예산을 대거 확보해 본격적인 복구사업에 나선다.

15일 장성군에 따르면 태풍 ‘미이파’와 지난달 6~9일 북부권에 내린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발생함에 따라 중앙부처와 전남도에 복구지원을 적극 건의한 결과 143억원 규모의 재난복구비를 확보했다.

군은 태풍 ‘미이파’와 집중호우로 인해 ▲재방 유실과 교량 전파 등 공공시설 49건(32억원) ▲사유시설 89건(8600만원) 등 총 33억6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군은 다음달 중순까지 복구 계획과 실시계획을 완료해 10월부터 본격적인 복구 작업에 착수해 내년 9기

전까지 모든 수해복구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주민의 안전을

회순 농업기술센터

26일부터 귀농교육

화순군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8회에 걸쳐 2차 귀농교육을 실시한다. 귀농자와 귀농 예정자 20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귀농인의 농촌생활 적 및 성공적인 영농전략’이란 주제로 진행된다. 첫날인 26일은 ‘셀프 리더십’이라는

위해 지속적인 현장행정을 추진, 재해가 우려되는 곳은 미리 점검해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홍희기자 yongho@

주제로 농촌현실과 자신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교육을 시작으로 귀농기획 이사와 함께 토양 바로알기, 농업인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농기계관리 실습, 영농현장 멘토와의 만남 등 농업이론과 현장교육이 마련된다. 한편 교육 신청자격은 화순군으로 귀농을 준비하거나 귀농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20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063-379-5405)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은빛 갈치의 향연

영암방조제서 21일 낚시대회

영암군은 오는 21일 삼호읍 용당리 소재 영암방조제에서 ‘제7회 영암군 수배 갈치낚시대회’를 개최한다.

삼호읍 문예체육행사추진위원회 주최·삼호읍 청년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가장 큰 갈치를 낚은 참가자에게 70만원, 2등 50만원, 3등 30만원을 준다. 갈치를 가장 많이 낚은 사람에게는 20만원을 시상한다.

보통 갈치는 먼바다를 나가야 낚을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영암 방조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독에 앉아 갈치를 낚는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참가를 원하는 강태공은 대회 당일 오후 6시까지 등록하고 참가비 2만원 을 내면 된다. 문의(063-379-5405) /중부취재본부=문영선기자 moon@

강진 전통시장 주민 소통의 장 된다

‘문전성시’ 공모사업 선정... 시장 활성화 기대

강진군 강진읍시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이하 ‘문전성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국비 등 최대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됐다.

강진을 시장은 지난해 2월 전체 면적 1만1921㎡에 사업비 65억원을 투입해 사물놀이 공연 등 다양

한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와 전천후 개장이 가능한 아케이드 시설 등 현대식 건물로 새롭게 단장했다.

또 상인대학을 통해 상인들의 의식을 높이는 등 전통시장의 기능을 겸비한 상설시장으로 활성화해 많은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강진읍시장 박이세 상인회장은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상호 소통하고, 공조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인 전통시장 한마당 큰잔치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운영해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는 ‘문전성시’ 공모사업은 시장문화 공동체 만들기를 통해 다시 찾는 시장, 주민과 소통하는 시장을 조성한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i@

전 북

군산 일제강점기 역사 한눈에

30일 역사박물관 개관

근대생활상 생생 체험

1920~1940년대 군산의 근대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됐다.

군산시는 총 182억원을 투입해 2년여간의 공사 끝에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을 완공 30일 개관식을 갖는다.

군산 원도십일 장미동에 들어선 역사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총면적 4248㎡ 규모로 일제강점기 항일의 역사와 수탈의 아픔을 간직해 군산의 특수성을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물관이 개관을 앞두고 모은 유물만도 총 4000여 점. 이중 단체와 시민, 학생 등이 기증한 유물이 2250여 점에 이른다. 특히 4개 국어(한·영·중·일)로 전시물을 소개하는 음성

안내 시스템과 홈페이지를 갖는다. 박물관은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특별전시실, 어린이관으로 꾸며졌다. 상설전시실 중에서도 해양물류 역사관은 국제무역항인 군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고 있다.

군산시 근해인 비안도를 비롯해 야미도와 십이동파도에서 출토된 국보급 청자 등 해양유물 100여점은 군산이 항구도시로 예부터 중요한 물류유통의 중심지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930년대의 생활상을 그대로 재현한 ‘근대생활관’도 빼놓을 수 없는 코너다. 1930년대 당시 군산항의 주기능을 담당했던 내항(內港)의 당시 모습과 부잔교, 인력차방, 영명학교 등이 복원돼 당시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뉴스 브리핑

전북대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 선정

전북대는 최근 환경부로부터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환경공학, 화학공학 부 등과 연계한 특성화 대학원을 만들어 온실가스 감축을 책임질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특히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과

목을 배치해 산업계 인력의 재교육에 힘쓰고 이들과의 공동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양고수 교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해 이에 적극 대응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군산시 내달 8일 ‘전통예술 경연대회’

군산시는 오는 10월 8일 군산 시민문화회관에서 제21회 전통예술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관소리 부문, 기악 부문, 전통타악 부문, 개인놀이 등으로 나눠 열린다. 참가자격은 전국 초·중·고교 재학생으로 타 대회 동일부문 장관상 수상자는 제외된다. 참가접

수는 20일부터 10월 7일까지 우편(군산시 나운동 779-19)이나 팩스(063-445-6946)를 이용하면 된다. 접수양식은 군산시청 홈페이지(www.gunsan.go.kr)나 군산국악협회 카페(cafe.daum.net/byi59)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남원시 매주 토·일 신관사도 부임행사 재연

남원시는 관광객 즐길거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주 토·일요일에 신관사도 부임행사를 재연한다. 첫 행사는 1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남원관광지 춘향 테마파크와 관한루원간 거리에서 펼쳐진다. 행사 페어리드는 변화도가

신관사도로 부임하는 모습을 재연해 국내외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부임행사 목격자인 관한루원에 도착하면 관람객들의 참여 속에 흥겨운 마당극 ‘춘향전’도 열린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완주 봉동일대 ‘테크노밸리 산단’ 기공식

완주군은 봉동읍 일대 131만여㎡에 ‘테크노밸리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15일 기공식을 가졌다. 테크노밸리 산단은 1500억 원이 투입돼 내년까지 만들어지며 분양가격은 3.3㎡당 49만원이다. 완주군은 이 산단에 탄소소재,

인쇄전자, 첨단 부품소재, 기계산업 분야의 기업을 유치해 첨단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 계획이다. 임정영 군수는 “이른 시일 내에 분양을 마무리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정읍 빛내서 수해복구비 마련하나

지방채 100억 발행 추진...의회선 “재정악화” 반대

지난달 440mm의 폭우로 수천억원의 재산 피해를 본 정읍시가 복구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요청, 시의회의 동의 여부가 관심을 끈다. 특히 일부 시의원들이 ‘재정악화’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정읍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수해 복구비 마련을 위해 지방채 1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시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지방채 발행에 관한 찬반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읍시가 수해를 본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총 918억원이다. 이중 특별 재난지역 선로에 따라

정부가 772억원, 전북도가 73억원을 지원받지만 나머지 128억원은 정읍시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세출 여건에 따라 이번 추경에 28억원을 반영할 계획이지만 나머지 100억원은 세원이 없어 빛이나 다름없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시는 전복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를 금리 4%에 장기 상환 조건으로 빌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채 발행에 따른 시 부채가 700억원에 이르는데 여기에 100억원을 추가로 빌릴 경우 빛이 많아져 재정이 어려워지고 연간 30여

억원의 이자까지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시의원은 “조속한 복구를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빛이 많은 상황에서 또 100억원을 빌린다면 결국 빚내 집 고치는 격이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시의원도 “빚만 얻을 게 아니라 정부에 추가 지원을 먼저 요청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정읍시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올해 지방채 발행이 안 되면 내년 예산에 복구를 반영할 수밖에 없어 세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피하기 어렵다”며 “시의회에 발행 동의를 간곡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전주 軍부대 임실 이전 가속도

주민반대 난항 겪다 재공사

아파트 등 공사진척률 28%

전주에서 임실군 임실을 대곡리 일원으로 옮기는 35사단 이전사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15일 전주시에 임실군에 따르면 옛 임실군청사 부지에 들어서는 군인아파트(81세대) 등 현재 31개 건축물을 착공하는 등 이전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전체 공사 진척률은 28% 수준이다.

35사단 이전사업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와 소송 등으로 인해 1년여간 공사를 중지하는 등 난항을 겪어 왔지만 지난 2010년 5월 실시계획을 재승인 받아 같은 해 6월부터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전주시와 임실군, 35사단은 지난해 12월 당초 대곡리 영내에 건설하기로 했던 군인아파트를 옛 군청사 부지에 이전 신축하기로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군인아파트는 지난 7월 국방부로부터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현재 터파기 등 토목공사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13년 3월까지의 부대이전 사업의 모든 공사가 완료될 전망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소송으로 부진했던 공정을 연말까지 40% 이상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군인아파트가 준공돼 입주하게 되면 임실군내 인구유입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